

‘남도장터’ 지자체 쇼핑몰 매출 1위

전남 우수 농·수·축산물 판매해 지난해 603억원...1년새 9% 성장 최근 5년간 100배 성장...입품 업체·상품 다양화, 맞춤 컨설팅 효과

전남 농·수·축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지난해 역대 최고인 60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 1위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장터는 지난 2018년 5억 4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이후 지난 2020년 326억원을 올리며 급성장한 뒤 지난해에는 600억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100배 이상의 성장을 거둔 것으로, 전년도 매출액(552억)을 9%를 초과 달성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입점 업체와 상품을 다양화하고 비활성화 업체의 경우 원인을 분석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 것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또 설·추석 명절 특판행사와 김장대전 등 각종

기획전 할인 이벤트를 통해 남도의 농·축산물과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데 힘쓰는 한편,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온라인 경매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한 점도 한 몫을 했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농산물 제값 받기를, 구매자는 신선도 높은 상품을 배송받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남도장터에는 지난해 말 기준 1826개 업체가 입점해 3만 3217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회원 수도 약 41만 2000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별 구매고객은 수도권이 26%, 비수도권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인기 상품으로는 쌀, 소고기, 약과, 돼지고기, 닭고기, 배, 사인머스켓, 전복, 김치, 계란이 꼽힌다.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농산물은 쌀,

배, 사인머스켓, 감자, 고구마 등이,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순으로, 수산물은 전복, 장어, 홍어, 조기, 바지락, 가공식품은 약과, 김치, 간장게장, 참기름, 꽃감 등이다.

전남도는 김장대전, 취약계층 체험활동 꾸러미 사업,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 신규 사업을 벌였고 농·축산물 판매 금액에 따른 할인 쿠폰을 지급, 누리집 재방문을 유도하는 판매 마케팅도 추진했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군별 기획전, 수도권 직거래 장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남도장터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는 첫 해인 만큼 생산자에게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에 도움을 드리고 소비자에게는 1년 365일 판매가 가능한 장기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생산자에게 새로운 판로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토록 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기정 시장 ‘광주 신년 경제정책’ 발표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광산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2023년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

도, 10년간 4조5000억 투입...진입부터 소득창출까지 맞춤 지원

전남도가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농어업 100년을 이끌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31년까지 10년간 4조5000억 원을 들여 단계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민선 8기 주요공약인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명 육성’을 통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의 진입부터 소득 창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농업 분야는 ▲농지 및 스마트팜, 각종 저리 융자·자

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기반 지원 ▲경영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확보 지원 등 고소득 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마련 ▲청년농이 안심하고 사는 정주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44개 사업에 3조3538억원을 투입한다. 수산 분야는 ▲청년 유입을 위한 소득기반 확충 ▲안정적 청년 고용과 거주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장업 지원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에 1조1788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계획 수립에 앞서 정책 수요자 맞춤형 사업, 제감도 높은 정책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정

년농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총체하게 수렴했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우량 농지 확보를 신규 사업으로 설계·지원한다. 특히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명 육성의 핵심사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11개소를 2024년부터 2031년까지 2ha 규모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진입 초기 청년농의 농지·시설·기술 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창업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또 창농형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으로 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영농 승계가 어려운 선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간 공동경영 방식의 ‘전남형 청년농 연수농장제’를 운영해 제3자 간 영농승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춤춤한 복지·안전 인프라로 소외 없는 행복 복구 만들 것”

문인 복구청장 신년 인터뷰

“주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 복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문인 광주 복구청장은 매주 수요일이면 복구 두 암동의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인력난 등을 이유로 급식소가 문을 닫은 지난 1년 동안에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할 정도로 주권을 챙겼다.

문 청장은 1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매번 봉사를 나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천사 청장’이라고 불리워 뿌듯하다”며 “모든 복구에 대해 천사로 불릴 때까지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문 청장이 ‘복지’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배경에는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9곳 중 5곳이 복구에 있고, 고령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체 예산 중 복지비 지출도 70%를 차지할 정도로 복지 예산의 비중이 크다. 이에 문 청장은 “복구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복구는 광주 최초로 수도검침원·우체국 집배원을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견 복지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행복공동체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도 진행중이다. 민선 7기부터 건설해 완공한 중흥도서관, 우산생활체육관, 복구종합체육관 등 지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SOC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 청장은 “위기 청소년의 차별없는 성장과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을 통한 교육 복지에 도 올해는 힘을 쏟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복구는 복지면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낙후된 자치구였다”며 “고령층 복지 뿐만 아니라 부모급여와 청년일자리팀 신설 등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이사오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문 청장은 신년 1호 결재로 ‘복구형 재해예방 종합 로드맵 수



립’을 선택했다. 로드맵에는 재해예방사업 추진과 홍수관리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담겼다.

문 청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의 결과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당장 드러난다”며 “지금 눈에 띄지 않더라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에 복구는 올해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난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완전히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침수취약지역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 청장은 “국지성 호우로 침수피해가 잦은 문흥동 성당과 복구청 사거리 일대에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신안고 일대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면서 “또한, 200억 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서방천 배수구역’ 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배우 최수종과 전남 구석구석 ‘행복여행’

전남도영상위 ‘수종씨의 행복여행’ 제작...21~23일 TV 방송

전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수종 배우가 전남 22개 사·군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소개하는 ‘수종씨의 행복여행’을 제작해 화제다. 이 프로그램은 설 연휴인 21~23일 지상파 방송에 방영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직접 최수종 위원장을 만나 전남 영상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전남 영상위원회 운영 계획을 설명했으며, 김 지사는 최 위원장에게 전남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남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전남도와 전남영상위원회는 도내 22개 사·군과 협력해 촬영지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영화·영상물 제작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영상위원회는 지난해 총 225편의 영화·드라마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했고, 이 중 52편의 본 촬영이 진행됐다. 또 ‘전라남도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